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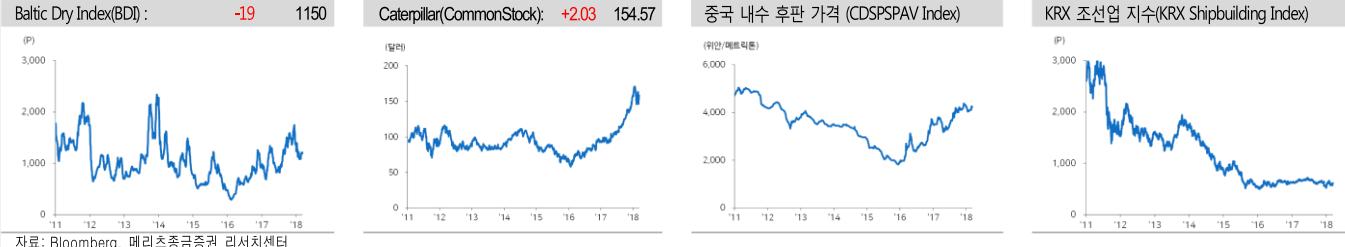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현대중공업	8,406.1	18.8	142,500	22	10.0	10.6	48.5	99.3	47.6	0.7
현대로보티스	6,921.8	21.2	425,000	-0.1	6.6	8.6	11.5	5.7	4.8	0.8
현대일렉트릭	853.2	6.7	83,600	0.8	-12.3	-27.0	-26.7	7.9	6.9	0.7
현대건설기계	1,718.5	8.7	174,000	-1.7	3.3	0.0	3.0	11.1	8.2	1.2
삼성중공업	3,908.4	17.3	8,440	0.1	7.8	30.5	30.5	53.2	26.4	0.5
대우조선해양	2,853.1	4.9	26,750	5.3	33.4	62.1	92.4	10.9	11.9	0.8
현대미포조선	2,150.0	12.9	107,500	0.5	4.9	13.0	36.6	23.2	16.7	0.8
한진중공업	350.0	6.6	3,300	-0.2	-2.8	-0.9	-0.3	66.4	16.6	0.5
현대엘리베이터	1,805.6	33.6	73,300	-2.0	23.4	38.0	34.7	12.9	12.6	1.8
두산밥캣	3,243.1	27.1	32,350	-1.2	-8.4	-3.0	-9.6	11.8	11.2	0.9
현대로템	1,321.8	25.3	15,550	0.3	3.7	-19.4	-17.1	20.1	13.7	0.9
하이록코리아	328.1	48.1	24,100	-0.8	-4.0	12.8	7.1	10.9	10.0	0.9
성광밴드	340.3	16.1	11,900	1.7	-2.5	17.2	19.2	1,051.9	42.7	0.8
태광	348.5	15.8	13,150	1.2	-4.4	16.8	9.1	78.5	38.3	0.8
두산중공업	1,565.0	9.9	14,700	-3.0	1.4	-8.7	-4.2	12.1	9.1	0.5
두산인프라코어	1,964.9	14.3	9,440	0.0	-8.8	5.9	8.6	8.1	7.1	0.8
두산엔진	387.8	4.3	5,580	1.8	41.6	34.5	51.4	-183.1	56.3	0.7
한국항공우주산업	4,854.3	17.6	49,800	-0.6	7.0	6.2	5.0	35.7	24.7	3.8
한화테크원	1,549.1	12.9	29,450	1.0	6.5	-17.5	-17.2	23.2	14.9	0.7
LIG넥스원	1,038.4	11.1	47,200	2.2	-3.7	-17.6	-21.1	18.5	13.3	1.6
태웅	399.1	3.4	19,950	-2.2	-7.6	9.3	3.1	N/A	N/A	N/A
동성화이텍	228.0	4.9	8,450	2.9	-5.3	71.4	67.3	-352.1	50.0	24
한국기본	309.0	16.1	7,030	0.7	4.3	32.4	31.2	58.3	31.5	0.9
										1.7
										3.1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3.7억 달러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총 계약규모는 약 3.7억달러로, 척당 1.85억달러 수준이며,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1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임. 이번 LNG선에는 ME-GI 엔진과 완전자액화시스템 FRS가 탑재될 예정임. (뉴시스)

Korea Line turns to HHI for pair of new VLCCs

대한해운은 GS칼텍스와 장기용선계약(COA)을 맺고, 30만DWT급 VLCC 2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19년 말과 20년 2분기에 각각 인도예정이며, 선가는 척당 8,500만달러로 알려짐. COA 계약규모는 2,100억원(1.97억달러)이며, 2019년 말부터 원유를 살고 중동과 한국을 오갈 예정임. (TradeWinds)

Minerva Marine eyes up gas carrier berths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inerva Marine은 LNG선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그러나 Minerva는 LNG선 시장 진출에 관해 부인함. 2020년까지 25~60척의 LNG선이 필요하단 전망에 BW Gas, TMS Cardiff 등 많은 선사가 투기적으로 발주하고 있음. (TradeWinds)

정부, 해운재건 계획 발표 지연...양대 원양 선사는 이전투구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가 지난 8일로 발표시점이 미뤄진 후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현대상선은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예상하고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내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알려짐. 또 최근 SM상선과의 갈등도 불어진 상황임. (매일경제)

Eastern Pacific returns to Hyundai Mipo for latest LPG carrier duo

Eastern Pacific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3.8만CBM급 중형 LPG선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19년 말에서 20년 중순 예정.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IMO Tier III 가스선은 척당 4,900만달러로 알려짐. 4년전 현대미포에 발주한 비슷한 선형의 LPG선은 척당 5,100~5,200만달러 수준임. (TradeWinds)

Battle lines drawn for second CMA CGM LNG bunker vessel

컨테이너선사 CMA CGM은 선대에 LNG를 공급하기 위한 두 번째 LNGBV(벙커링선) 발주를 계획함. CMA CGM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4만TEU급 6+6척에 대해 LNGBV 선조선으로 LNG를 공급할 계획임. LNGBV는 1.4만CBM급 탱크가 장착되며, 신조선 경쟁에 현대중공업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TradeWinds)

삼성重, '완전한 한국형 LNG선' 건조...SK해운에 인도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서 수주한 17.4만CBM급 LNG선 2척을 잇달아 인도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에는 한국형 화물창(KC-1)이 최초로 탑재됨. KC-1은 한국기사스공사가 국내 조선3사와 10년에 걸쳐 공동 개발한 기술로, 이번 KC-1 적용 성공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한국형 LNG선'이 만들어짐을 뜻함. (EBN)

HMM readies yard tender for boxship banquet

현대상선은 2020년 인도를 목표로 2.3만TEU급 8척과 1.4~1.5만TEU급 12척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이달 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아직 읍선이 몇 척일지는 불확실함. 현대상선은 환경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나 LNG 연료추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선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3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